

# 유엔사의 재활성화 요인과 전략적 가치 재고찰

임기훈\*

- I. 서론
- II.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과정
- III. 유엔사의 재활성화 및 국제화 촉진요인
- IV.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
- V. 결론

## 요약

본 연구는 미국의 국방전략 등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사와 재활성화 요인, 전략적 가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식에서 유엔사를 한반도 평화 유지와 유사시 우방국의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하였다. 이는 유엔사가 동맹·우방국들이 연대할 수 있는 다자 안보기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엔사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되었다. 이후 지난 70여년간 점진적 축소기, 정체기, 재활성화기를 거쳐, 현재는 국제화의 단계로 진화 중이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전략적 중심축이 아시아로 전환되는 미국의 국방전략의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결을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 주한 미군 전력규모 조정 움직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오늘날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국적군의 전력창출을 보장하며, 미국과 동맹·우방국의 전략적 투사능력을 제고하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결시키면서 다국적 안보 협력을 촉진시키는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미·중 경쟁과 갈등으로 초래된 작금의 안보상황을 고려컨대,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반도와 역내 안보 불확실성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유엔사 후방기지, 유엔사의 재활성화, 한미동맹, 미일동맹,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

\* 국방대학교 총장

※ 본 논문의 초고에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세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어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유엔사의 재활성화 요인을 분석하고, 작금의 매우 유동적인 안보상황하에서 유엔사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재고찰하는데 있다. 2023년 7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식 연설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한반도 유사시 우방국들이 즉각적 군사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의 연설은 유엔사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 동맹·우방국들이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다자 안보 기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었다. 이어 2023년 11월 14일, 서울에서는 유엔사 회원국 17개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를 통해 각 국은 점차 심중해지고 있는 글로벌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다자가 협력할 수 있는 안보플랫폼으로서 유엔사의 가치를 조명하였다.<sup>1)</sup> 2024년 4월 5일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유엔사 회원국 주한대사 초청행사를 개최하여,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의 정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엔사는 창설 이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21세기 들어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 아시아로 전환되면서 미국은 유엔사를 다국적 안보기구로 재편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심대해지고, 동·남중국해, 타이완, 동남아 등지에서 군사적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역내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추동하기 위해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반영하여 현 시대 유엔사의 안보적·전략적 가치를 재고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유엔사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sup>2)</sup> 둘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시 유엔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sup>3)</sup> 셋째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의 군사적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sup>4)</sup>

1)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주요내용과 성과.” 『국방일보』(2023. 11. 16).

2) 노동영. “한국문제에서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국방연구』 제60권 4호(2017), pp. 53-75.; 문진욱. “유엔사의 역사적 재고찰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군사연구』 제135호(2013), pp. 247-273.; 안준형. “유엔군사령부의 미래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안보연구시리즈』 제6권 1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2020), pp. 1-48.; 이상철. “한반도 정전체제와 UNC 위상.” 『군비통제』 제34집(2003), pp. 275-318. 등 참조

3) 박휘락, 김병기.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가 유엔군사령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안.” 『신아세아』 제19권 3호(2012), pp. 76-98.; 설인효. “유엔사의 어제와 오늘.” 『군사』 제108호(2018), pp. 1-36.; 유상범. “Future Roles of United Nations Command.” 『평화연구』 제25권 2호(2017), pp. 161-183.; 정재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 제141권(2014), pp. 1-8. 참조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들은 유엔사의 창설과정과 국제법적 쟁점, 전자권 전환시 유엔사의 미래, 정전협정의 관리와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 기능 등 군사적 관점에서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석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필자는 유엔사 창설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의 변화 과정, 특히 유엔사의 재활성화 추진과정과 재활성화 촉진요인, 미·중 전략경쟁으로 점철된 신냉전시대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유엔사 재활성화는 전자권 전환 추진 등 국내적 요인 뿐만 아니라 냉전 종식 이후 미 국방전략의 변화와 미국내 주한미군 전력규모 조정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오늘날 유엔사가 갖는 전략적 가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3국 및 우방국들이 상호 협력과 연대를 제고할 수 있는 다국적 안보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 II.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과정

한반도 내 주한미군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3대 군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이다. 한미 연합사는 전시 지정된 한·미 양국군의 전력을 작전통제하고,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연합연습을 수행한다. 주한미군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지원하고 주한미군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유지 및 관리,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의 전력을 통합하여 연합사에 제공한다.

유엔사는 창설 이후 점진적 축소기, 정체기, 재활성화기를 거쳐 현재 국제화 단계로 진화 중이다.<sup>5)</sup> 유엔사는 창설 이후 대북 군사작전을 총괄했으나, 주한미군사가 창설된 이후 기능과 역할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었고, 한미 연합사 창설 이후에는 정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후, 미국의 전략적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유엔사의 재활성화가 추진되었다. 유엔사의 재활성화는 2018년에 완료되었으며, 현재 유엔사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우방국의 참여를 확대하여 역내 안정과 평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안보기구로의 변혁을 모색 중이다.

4) 박원곤. “유엔사의 역할 평가.”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2007), pp. 1-4.; 장광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9).; 장광현, 최승우, 홍성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의 전력창출에 관한 연구.” 『사회융합연구』 제1권 3호(2017), pp. 1-18. 참조

5)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유엔사의 변화과정(점진적 축소기, 정체기, 재활성화, 국제화)은 필자가 정의한 것이다. 유엔사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는 유엔사에서 제시한 용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 1. 유엔사 창설~1998년까지

유엔사는 유엔안보리결의 제82호, 83호, 84호에 의거 창설되었다. 유엔안보리결의 제82호(1950. 6. 25)는 북한의 전쟁 중지를 요구한 결의이다. 유엔안보리결의 제83호(1950. 6. 27)는 유엔회원국이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결의로서, 한국에 전투병력과 물자를 제공하는 국제법적 근거가 된다. 유엔안보리결의 제84호(1950. 7. 7)는 미국이 지휘하는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창설을 승인한 결의이다. 이 결의에 따라 1950년 7월 24일 일본 동경에서 미 극동군사령부를 모체로 하여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유엔사는 1950년 7월 31일 유엔안보리결의 제85호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구호활동을 수행하는 임무를 추가로 부여받았다.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전력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도 이루어졌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1950년 7월 10일 안보리결의에 의거 창설된 통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을 당시 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1950년 7월 14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으며, 7월 16일 유엔사는 미 극동군사령부 예하 미8군사령부, 극동 해군사령부, 극동 공군사령부가 각각 유엔사 예하 지상군구성군사령부(지구사), 해군구성군사령부(해구사), 공군구성군사령부(공구사)가 되어 한반도에서의 지상·해상·공중작전을 통제한다는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하였다. 또한 1951년 9월 15일 미국은 일본과 ‘요시다-에치슨 교환공문’<sup>6)</sup>을 통해 유엔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내 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954년 2월 19일에는 유엔사-일본 정부간 ‘주둔군지위협정(SOFA)’<sup>7)</sup>을 체결하여, 일본이 유엔군에 시설 및 근무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공식화하였다.<sup>8)</sup>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이 조인됨으로서<sup>9)</sup>, 한반도에서 전쟁

- 
- 6) 6·25 전쟁 기간 미국은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하였고, 1951년 9월 8일 미·일간 평화협정 조인 후에도, 미국은 유엔군의 일본 주둔과 일본의 병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요시다 일본수상과 에치슨 미 국무장관간 교환공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 7) 유엔사-일본간 SOFA는 미일 평화협정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유엔 회원국 또는 회원국의 군대가 극동지역에서 분쟁에 개입하게 될 경우 일본은 일본 내 또는 일본 주변에서 유엔의 조치에 참여하는 군대에 대한 지원을 허가하고 지원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 8) 설인효. “유엔사의 어제와 오늘.” 『군사』 108호(2018), p. 11.
  - 9)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다. 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팽덕회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조인하였다.

은 끝났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당일, 유엔 참전국 16개국은 북한이 다시 남침하여 전쟁 재발시 신속히 재참전한다는 “한국 휴전에 관한 16개국 공동정책 선언문”, 소위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다. 유엔은 또한 1954년 12월 11일 ‘유엔총회 결의안 제811호’를 채택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유엔사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후에도 다수의 유엔결의를 통해 유엔사의 지속적 존립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sup>10)</sup>

정전협정과 워싱턴 선언, 유엔총회 결의 등에 근거하여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무력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는 역할이다. 둘째는 유엔총회결의안 제376호<sup>11)</sup>에 따른 한반도 통일 지원이다. 셋째, 유엔사는 평시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넷째, 유엔사는 한미동맹에 대한 전력제공국의 지원을 협조하고,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sup>12)</sup> 이를 위해 유엔사 후방지휘소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들의 후방기지 접근과 사용을 보장한다.<sup>13)</sup> 유엔사는 미 국가통수기구-미 국방부의 지휘체계를 받는다. 이는 미국이 유엔으로부터 유엔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에 기인한다.

한국에서의 군사 및 구호작전을 총괄했던 유엔사는 1957년 7월 1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점차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었다. 유엔사는 여전히 군사작전을 지휘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재건 지원, 한국군의 전력증강 지원, 한국군과의 훈련 등의 임무는 주한미군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사는 또한 주한미군사 내 한미 연합기획참모단을 설치하여 한·미 군사관계를 조정·관리하였고, 그 외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들의 복지 등을 포함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였다.<sup>14)</sup>

1978년 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지정된 한·미 양국군을 통제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을 주도했던 유엔사의 기능은 연합사로 이관되었고, 유엔사는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된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연합사 창설 이후 유엔사는 군정위의 기능과 역할에 한정된, 사실상 정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10) 1950년 7월 31일부터 1975년 유엔총회 결의 제3390호에 이르기까지 안보리결의 3회, 총회결의 53회 등 총 66회의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다수의 결의에 유엔군사령부 혹은 통합군사령부로 표현되어 있다. 김병기. “유엔 군사령부 지위와 역할 변화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9), p. 102.

11) 1950년 10월 7일 채택한 결의안으로,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복진할 수 있는 근거이다.

12) 이상철. 『한반도 정전체제』(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pp. 110-113.

13) 장광현.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전략자산 유엔군사령부 인사이트』(서울: 선진, 2022). pp. 85-93.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70년사』(서울: 국방부, 2023), pp. 67-70.  
김일영, 조성렬.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서울: 한울, 2003), p. 83.

〈표 1〉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과정

6·25 전쟁 기간 (1950~195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투 및 구호작전 수행</li> <li>• 1951. 7월~1953년 7월, 정전협상 진행</li> </ul>
주한미군사 창설까지 (1953. 7~1957.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전협정 유지 및 군사작전 지휘</li> </ul>
주한미군사 창설 ~ 한미 연합사 창설 (1957~197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사는 여전히 정전협정 유지, 군사작전 지휘 임무 수행</li> <li>• 주한미군사는 한미 군사관계를 관리하고, 국군의 전력증강 지원하며, 주한 미군 관리 등의 임무 수행</li> </ul>
연합사 창설 ~19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사는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된 기능만 수행하고, 유엔사가 수행했던 군사 작전 지휘 기능은 연합사로 이관(유엔사의 정체기)</li> <li>• 주한미군사는 한미군사관계 관리 등의 임무 지속 수행</li> </ul>
1998년~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의 점진적 확대기(1998년 이후)</li> <li>• 유엔사의 재활성화 추진(2014~2018년)</li> </ul>
2018년~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사 회원국 확대,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 확대 추진</li> </ul>

출처 : 필자 작성

## 2. 유엔사의 재활성화 및 국제화 추진(1998년 이후~현재)

냉전 종식 이후 북한, 이란,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부상,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등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안보환경은 미국의 전략적 중심축을 아시아로 전환하는 동인이 되었다.<sup>15)</sup> 또한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 본격화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 등 한미동맹관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논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 맞춰, 한반도 정전관리와 전력제공자로서의 유엔사의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엔사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16)</sup> 유엔사의 재활성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2018년 완료되었다. 유엔사의 재활성화는 유엔사 참모조직을 보강하고, 유엔사 회원국들의 수를 늘리며, 유엔사의 연합연습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sup>17)</sup>

유엔사는 1998년 2월 27일 유엔사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하여 미8군사령관을 유엔사 지상군구성군사령관에, 주한미공군사령관을 유엔사 공군구성군사령관에, 주한 미해군사령관

15) 임기훈. “탈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제4호(2021), pp. 75-76.

16) 김병기.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 변화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9), pp. 141-143.

17) 장광현, 최승우, 홍성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의 전력창출에 관한 연구.” 『사회융합연구』 제1권 3호(2017), pp. 1-18.

을 유엔사 해군구성군사령관에, 주한 미해병대사령관을 유엔사 해병대구성군사령관에, 주한 미특전사령관을 유엔사 특전구성군사령관에 임명하여 회원국 부대의 수용과 통합 임무를 부여하였다.<sup>18)</sup> 이후 미측은 다양한 계기에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003년 1월 린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더 많은 다국적군 증원병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엔사의 기능 보강을 지시하였고,<sup>19)</sup> 2005년 말 라포트(Leon La Porte) 유엔군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유엔사 회원국들의 역할과 유엔사 본부 인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2007년 1월 18일 벨(Burwell B. Bell III) 사령관은 “한미 연합사 해체와 한국군으로의 작전통제권 전환 시 유엔사의 군사적 권한과 책임에 부조화를 초래할 것이며, 유엔사가 전시 유엔사 회원국이 제공하는 모든 지원전력에 대해 작전지휘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한·미 국방장관은 2003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공동성명에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해 유엔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하였고, 이후 매년 SCM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재강조하고 있다.<sup>20)</sup>

유엔사 재활성화는 2013년도에 스캐퍼로티(Curtis N. Scaparrotti) 대장이 유엔군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본격 추진되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다국적 작전을 수행해야 하며, 다국적 수행자로서 능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유엔군사령부의 재활성화 비전을 제시하였다.<sup>21)</sup>

유엔사 재활성화는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유엔사 회원국들이 한반도 유사시 지속적인 지원 및 국제적 지지 세력이 되어주길 원하는 미국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였다. 이러한 노력은 후임 브룩스(Vincent K. Brooks) 사령관 재직시에도 일관되게 추진되었다.<sup>22)</sup>

18) 안준형. “유엔군사령부의 미래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안보연구시리즈』 제6권 1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2020), p. 17.

19) 노동영. “한국문제에서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국방연구』 제60권 4호(2017), p. 68.

20) 2003년 SCM 공동성명은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긴요한 수단 이 되어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고 명시하였다. 2011년부터는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SCM 공동성명을 통해 기술하고 있다.

21) 2014년 7월 28일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미 태평양사령관, 미 합참의장에게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Revitalizing the United Nations Command)’ 제하의 서신을 통해, “재활성화된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다국적 수행자로서 능력을 확장시킬 것이며, 유엔사는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다국적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정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적대행위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확전을 방지하며,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유엔군사령관으로서의 비전을 명시하였다. 출처: 장광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9), 부록 8.

22) 장광현.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전략자산 유엔군사령부 인사이트』(서울: 선진, 2022), pp. 165-166.

2014년부터 본격화된 유엔사의 재활성화는 2018년 유엔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완료되었다.<sup>23)</sup> 현재는 유엔사 회원국을 확대하고 유엔사를 다국적 기구화하려는 유엔사의 국제화가 진행 중이다.

탈냉전시대 미국은 한국 방위를 위한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동맹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미 합참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유지 및 집행기능을 보장하되, 전작권 전환에 따른 연합지휘구조의 변화에 대비하여, 유엔사를 다국적 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미 합동참모본부는 유엔사령부의 참모편성을 강화하면서, 유엔사령부의 규모를 최적화하고, 유엔사 회원국의 신규가입 확대를 추진한 것이다.

유엔사의 재활성화와 국제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는 다음과 같이 가시화되었다. 우선 유엔사령부의 한·미 참모인원이 1978년 11월 9명에서 1999년 3월 30명, 2007년 3월에는 138명으로 확대되었다.<sup>24)</sup> 유엔사 내 주요 참모직위 또한 다국적으로 구성되었다. 2015년부터 유엔사 기획참모차장을 호주군 준장으로 보직하였다. 2018년 7월에는 캐나다 웨인 에어(Wayne D. Eyre) 중장을 유엔사 부사령관에 임명하였고, 그 후임으로는 호주 해군 중장 메이어(Stuart C. Mayer) 제독, 이어 영국의 해리슨(Andrew Harrison) 육군 중장, 2023년 12월 14일부터는 캐나다 맥컬레이(Derek A. Macaulay) 육군 중장이 보직 중이다. 또한 주한미군사 참모장이 겸직해오던 유엔사 참모장을 2018년 8월부터는 별도 직위로 분리하여 미군 장성을 보직시키고 있다. 2019년에는 독일과 덴마크군의 유엔사 참여를 추진하였고,<sup>25)</sup>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의 장성~대령급 인원이 유엔사에 보직되어 있다. 또한 2023년 12월 기준 17개 국가가 유엔사 회원국<sup>26)</sup>으로 가입되어 있다.

23) 유엔사 홈페이지에 “Shortly after the relocation of UNC HQs from Seoul to Pyeongtaek in 2018, UNC revitalization ended”라고 명시.

<https://www.unc.mil/History/Post-1953-Evolution-of-UNC/>(검색일: 2023.12.13.).

24) 장광현(2022), p. 178.

25) “독 참여와 덴마크 활동 확대반대”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7/12/ZPF2EAZPAVDL5MK66DJRRXOXJU/>(검색일: 2023.12.14.).

26) 6·25 참전 22개국 중, 유엔사에 참전국 연락단을 운용중인 17개 국가를 의미한다. 전투병력 파병 16개국 중 에티오피아,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14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과 의료지원국 6개국 중 인도, 스웨덴, 독일을 제외한 3개국(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이다.

### Ⅲ. 유엔사의 재활성화 및 국제화 촉진요인

전술한 바와 같이 냉전 종식 이후 안보상황의 변화는 유엔사 재활성화 논의로 이어졌다. 유엔사의 재활성화는 미 국방전략의 변화, 한국내에서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관계의 재조정 움직임, 미국내 주한미군 전력규모 조정 동향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1. 미국의 국방전략

다국적 안보협력 기재로서 유엔사를 재활성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는 미 국방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 아시아로 전환된 것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2001~2009) 시절부터 본격화되었다. 미국은 한국·일본을 포함한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이 미국의 힘의 원천 중 하나라고 평가<sup>27)</sup>하고, 2001년과 2006년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에 이러한 전략적 기조를 반영하였다. 2008년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또한 글로벌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전제하고 있다.<sup>28)</sup>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2009~2017)의 국방전략은 대중국 견제전략이 핵심이며, 추후 ‘아태지역 재균형 전략’으로 정립되었다.<sup>29)</sup>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도전요인으로 인식하고, 아태지역에서의 미 군사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시하였다.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2017~2021)의 국방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지역 중시전략을 계승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2017 국가안보전략서(NSS), 2018 국방전략서(NDS)와 군사전략서(NMS)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안보를 위해 동맹·우방국과의 국방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들어 2022년 2월 발간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주요 이슈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그룹으로 Quad<sup>30)</sup>를 주목하였고, 북한 문제를 넘어 인프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Free and Open Indo-

27) 임기훈(2021), p. 79.

28)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Defense Strategy 2008*. pp. 15-16.

29) 윤지원, 심세현.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안보전략.”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집 1호(2016), p. 361.

30) 4자 안보대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약칭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정기적 정상회담을 뜻한다.

Pacific, FOIP)을 위해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sup>31)</sup>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해서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sup>32)</sup>가 핵심이며,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AUKUS<sup>33)</sup>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및 유럽의 우방국들이 역내 현안에 참여토록 견인할 것임을 명시하였다.<sup>34)</sup> 이러한 미국의 국방전략은 미·중간 국력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향후 미·중간 전략경쟁이 군사, 에너지·금융 등의 경제, 가치·규범을 아우르는 전 영역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립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경쟁 체제 하에서, 유엔사는 동맹·우방국과 안보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상설 국제기구이다. 또한 미국이 추구하는 모든 국방요소를 통합한 억제력 강화, 즉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미국 중심의 진영 결속체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러한 통합억제 역량 증대를 향후 미·중간 패권경쟁의 향배를 좌우할 핵심 노력선으로 인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유엔사의 재활성화를 추진하였다.

## 2.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결

미국의 국방전략은 일관되게 미일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간으로,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유기적 결합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은 더할 나위없이 중요하다.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실체적 고리이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의 부대·장비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개하여 한미 연합사에 통합되는 제 과정을 조정·통제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사 후방지휘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7개소의 주일미군 기지가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되어 있다. 유엔사 후방지휘소는 유엔-일본간 SOFA 협정 유지, 회원국의 선박·항공기의 유엔사 기지 방문요청 승인, 일본에서 발생하는 유엔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유엔사 후방기지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sup>35)</sup>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의 부대·장비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서는 한·미·

31) The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2022).

32) 미국 군사력에만 국한된 억제력을 넘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통합하고, 동시에 동맹국의 역량까지 통합하여 억지력을 구축하겠다는 개념이다. 한국국가전략연구소, 『2022 동아시아전략평가』(서울: 한국국가전략연구소, 2022). p. 88.

33)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의 3국 동맹을 의미한다.

34) The White House(2022), pp. 11-12.

일 3국간 군수지원과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며,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가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연결 고리인 셈이다.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의 범위를 범세계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미군과 자위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갔다.<sup>36)</sup> 일본의 안보전략은 복합적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다각적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3년 12월 최초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공표하였다. 2015년 체결된 ‘미일방위협력 지침’은 자위대와 미군의 상호운용성을 확대하며, 시설 및 구역의 공동사용과 군수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37)</sup> 2022년 12월, 일본의 안보전략 체계는 ‘국가안전보장 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으로 재정립되었다. 위의 안보전략 문서 모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일본과 동맹·우방국간 양자 그리고 다자간 방위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이후 실시된 미·일간 국방장관회담, 안보협의위원회(2+2)에서도 미·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지역 안보에 있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중요성, 주한미군을 포함 역내 주둔 미군 억제력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sup>38)</sup>

역내 북한과 주변국의 안보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미·일 및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일 양국의 바램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실제적 연결고리인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유엔사 후방기지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유엔사의 재활성화를 촉진시킨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한미동맹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이다. 한국의 전작권 전환 노력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한미간 협의를 통해 2006년 10월 제38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 완료 시기에 합의하였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우려가 심대해 짐에 따라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35) 이상철(2012), p. 113.

36) 임기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서울: 플래넷미디어, 2022), p. 168.

37)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23* (2023年版 防衛白書 英語版) (Tokyo: Nikkei Printing, 2023), p. 361.

38)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23* (2023年版 防衛白書 英語版), pp. 365-370.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였다. 2015년 제47차 SCM에서는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재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모습은 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양국은 현재의 한미 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SCM-MC-한미 연합사에 이르는 연합방위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연합사령관을 한국군 4성장군으로, 연합사 부사령관을 미군 4성장군으로 바꾸는 개념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전작권 전환이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실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군 지휘부도 인식하고 있었으며,<sup>39)</sup> 한미 연합사 해체시 정전협정 관리를 위해 한국군이 유엔군사령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up>40)</sup>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의 역할 및 연합사령부의 위상 변화를 수반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유엔사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작전에 개입할 수 있는 사령부이자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변화를 모색한 것이다.<sup>41)</sup>

#### 4. 주한미군 전력규모 조정 추진

미국내 주한미군 전력규모의 조정 움직임 또한 유엔사의 재활성화와 국제화를 촉진시킨 요인이다. 주한미군의 감축은 2004년~2006년 동안, 이라크전 수행을 위해 미2사단 병력 3,600여명을 포함 약 9,000명이 철수하였다. 이후 28,000여명의 병력수준을 유지하던 주한미군은 2017년 2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또 한번 철수 위기를 겪게 된다.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임기 중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반면, 당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군 지휘부는 한국의 안보와 동아시아의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sup>42)</sup> 이처럼 미국내 반복되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논란으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 국제

39) 2007년 1월 18일 벨 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은 서울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사 해체시 유엔군사령관은 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와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부대에 대한 즉시적인 접근권한이 없어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전을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40) 박휘락, 김병기.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가 유엔군사령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안.” 『신아세아』 제19권 3호 (2012), pp. 88-90.

41) 정재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 제141권 (2014), p. 1.

적 지원을 창출하는 유엔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군은 2018년부터 유엔사를 다국적으로 편성하여 국제화시키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미 합참은 2018년 6월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을 개정하여 ‘전력제공국’(sending states)의 정의를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 비군사적 기여를 하였거나 할 국가”로 확대했다.<sup>43)</sup> 2018년 7월에는 캐나다 장성을 유엔사 부사령관에 최초로 임명하였고, 2018년부터는 한미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유엔사 회원국의 수와 규모도 대폭 증가했다.

미군 지휘부는 미국내 정치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비하면서, 한반도와 아시아 안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미군의 전략적 판단은 유엔사의 국제화 추진을 가속화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미국은 유엔사 회원국의 신규 가입과 유엔사 참모부 편성을 통해 회원국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sup>44)</sup>

전술한 바와 같이 유엔사의 재활성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그 필요성이 논의되다가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미 국방전략의 변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유기적 결합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 한국내에서 분출된 전작권 전환 추진 움직임과 미국내 주한미군 전력규모 조정 동향 등의 요인은 유엔사의 재활성화를 촉진시킨 핵심 동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유엔사 재활성화가 완료된 이후 작금의 유엔사는 사실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는 다국적 안보플랫폼으로서 그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

## IV.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

2023년 말 기준 유엔사령부는 ① 유엔사 본부, ② 유엔사 군정위, ③ 유엔사 경비대대, ④ 유엔사 의장대, ⑤ 유엔사 후방지휘소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사 본부는 사령관(미군 4성장

42) “트럼프, 주한미군철수 수차례 언급…韓 다루기 끔찍하다 말해,”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003100071>(검색일: 2024.1.7.).

43) 기존에는 전력제공국을 한국전쟁 참전국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였으나, 2019년 7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가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에 ‘전력제공국’을 본문과 같이 확대 정의하였다. 통일뉴스, “유엔사 ‘재활성화’의 배경과 목표,”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419>(검색일: 2024.1.7.).

44) “국방부-유엔사, ‘유엔사 역할확대’ 이견조율 고위급 협의체 가동,” <https://www.mk.co.kr/news/politics/8982531>(검색일: 2024.1.7.).

군), 부사령관(캐나다 3성장군), 참모장(미군 2성장군)과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기획, 통신 참모부로 구성되어 있다.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는 정전협정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유엔군측에서 임명한 5명과 공산군측에서 임명한 5명의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군측 수석대표는 1991년 3월 25일 황원탁 소장이 임명된 이후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어 오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예하에 지상군·해군·공군·해병대·특수전 구성군사령부, 5개의 구성군사령부를 두고 있다. 또한 주일미공군사령부 내 유엔사 후방지휘소를 설치하고, 주일미군 기지 89개소 중 7개소를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하여 운용 중이다.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는 유엔사 재활성화 완료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반도 정전협정을 수호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국적군의 전력창출을 보장하며, 미국과 동맹·우방국의 전략적 투사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일부 유엔사 후방기지는 미군의 전쟁예비물자 비축기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아울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결시키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국적 안보협력을 촉진시키는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1.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관리자로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화된 사령부이다. 유엔사는 평시 남북간 정전협정 준수는 물론 북한의 도발 등으로 초래된 위기상황 발생시 정전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를 수행한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북한의 소행으로 인한 각종 사건과 도발은 끊이지 않았다. 1960년대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미 해군 EC-121기 피격사건, 1·21 사태, 푸에블로 호 피랍사건 등의 북한 도발시, 유엔사는 북한군과의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를 추진하면서, 유엔안보리를 통해 국제사회가 대응토록 하였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자, 유엔사는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도, 한·미 양국군의 군사력을 과시하여 북한을 압박하였다. 1984년 마투조크 망명사건<sup>45)</sup>이 발생하였을 때는 유엔사는 북한에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에 보고해 국제사회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8년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당시 유엔사는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북한의 침투 장비를

45) 1984년 11월 23일 소련인 마투조크가 판문점 견학 도중 남쪽으로 넘어오면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와 유엔사와 북한군들간 총격전이 발생, 양측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확인하였고, JSA를 통해 북한군 시신을 송환하였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유엔사의 지원 하에 다국적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였고, 유엔안보리에 조사결과를 제출하였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유엔사는 다국적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였다. 유엔사는 또한 유엔사와 중감위 인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훈련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는 유엔조사반을 편성하여 이 사건이 북한군의 소행임을 특정하였다.<sup>46)</sup>

이렇듯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수호하고,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 다국적군의 전력창출 보장

한반도 위기시 유엔사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사 회원국들과 우방국들의 전력을 통합하여 한미 연합사에 제공한다. 다국적군 전력의 창출은 유엔안보리결의 제82, 83, 84호 및 6·25 전쟁 전투병력 파병국 16개국의 워싱턴 선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사시 한국에 대한 동맹·우방국들의 지원은 전투병력과 장비 파견, 재정·의료 등 비전투분야 지원,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우방국의 입장을 외교적으로 지지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sup>47)</sup>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획득하고, 병력과 장비 등 주요 전력을 신속하게 창출하기 위해서 기채택된 안보리 결의와 워싱턴 선언은 여전히 유효한 국제적 근거가 된다. 또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결의 위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엔사에 의해 창출되는 동맹·우방국의 지지 및 전력제공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유용한 플랫폼으로 작용한다.

## 3. 미국·동맹국·우방국의 전략적 투사능력 제고

유엔사 후방기지는 일본 본토에 4개소 (① 요코다 공군기지, ② 캠프 자마, ③ 요코스카 해군기지, ④ 사세보 기지), 오키나와에 3개소(⑤ 카데나 공군기지, ⑥ 후텐마 해병항공기지, ⑦ 화이트비치)가 있다.

46) 본문에서 언급한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은 신상범·Andrew Harrison, 『한반도 군사정전협정』, 2023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47) 장광현, 최승우, 홍성표(2017), p. 13.

요코다 공군기지는 유엔사 후방지휘소(UNC-Rear)와 주일미군사령부, 제5공군사령부, 제374공수항공단 등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 본토 최대의 미 공군기지이다. 범세계적 차원의 항공수송 작전시 중계기지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어느 곳이라도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공군기지이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정부 및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협조하여 한국내 유엔사 회원국 소속 비전투원 후송작전을 지원한다.

캠프 자마는 주일 미 육군사령부와 미 육군 제1군단 전방사령부가 있는 기지이다. 각종 물자의 보급, 정비, 보관 등 후방지원과 병참시설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캠프 자마는 주일 미 육군을 지휘통제하는 사령부로서 한반도 유사시 최초로 투입되는 미 증원부대를 지휘한다. 캠프 자마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사가미 종합보급창은 미 증원부대의 집결지역이자 각종 군수물자 및 탄약의 중계 기지이다.

요코스카 해군기지는 최신 핵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한 항모전투단이 전개해 있는 제7함대의 모항이자 48~72시간 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출동할 수 있는 전력투사기지이다. 요코스카 북항에는 6개의 드라이도크 등 세계 최대 규모의 함정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세보 해군기지는 일본 본토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중 한반도와 불과 320km 떨어진 기지이다. WASP급 강습상륙함 등 상륙전단 전력이 전개되어 있으며, 한반도와 최근접 해군 기지로서 한반도 유사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오키나와는 일본 동경보다 중국이 더 가까운, 제1열도선내 위치한 천혜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필리핀해, 센카쿠 열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역내 동맹·우방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을 투입할 수 있는 다수의 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다.

오키나와에 위치한 후텐마 해병항공기지는 동맹·우방국들의 전력을 통합할 수 있는 RSOI<sup>48)</sup> 기지이자 미군 전력을 신속하게 투사할 수 있는 전진기지이다. 후텐마 해병항공기지는 제1해병 비행사단과 제3해병기동군의 서태평양 전개를 지원하는 항공수송 기지이다. 2023년 10월에는 대북 확증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프랑스 항공부대가 전개하여 정보감시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였다.

카테나 공군기지는 오키나와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 중 최대 규모의 공군전력 투사 기지이다. 제5공군 예하 F-15 전투기 대대, E-3B 공중정보기 대대, MC-130 특수작전대대, 공중 수송대대 등 다양한 항공전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호주와 캐나다군의 전력도 전개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사시 한반도까지 1시간 이내 항공기 전개가 가능하여 한반도 전쟁

48)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Integration. 수용, 대기, 전방이동, 통합

역제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화이트비치 해군기지는 오키나와에 기항하는 미 군함의 주요 기항지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미 군함에 대한 급유지원과 해병대 부대의 순환을 지원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미 해병대가 전개시 필수적인 항만시설을 제공한다.

유엔사 후방지휘소는 요코다 기지의 주일미군사령부 건물 내 위치하고 있다. 후방지휘소 지휘관은 호주 공군 대령이 맡고 있으며, 수명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일본으로 전개하는 유엔사 회원국들의 자산과 병력의 출입을 위한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미군 전력은 괌, 하와이, 일본이라는 전략적 허브를 통해 투입되며, 일본 내 산재한 주일미군 기지는 미군 전력과 동맹·우방국 전력의 역외 투사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유엔사-일본간 체결된 SOFA(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유엔사 전력증원이 자동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병참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전력제공자(Force Provider)로서 유엔사의 역할을 보장한다.<sup>49)</sup> 이를 위해 현재 9개국이 유엔사 후방지휘소에 연락장교를 파견중이다.<sup>50)</sup> 이와 같이 유엔사 후방기지는 미군전력과 유엔사 회원국들의 상시 전력전개를 보장하고, 한반도를 넘어 역내 각종 우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투사기지로써 기능을 수행한다.

#### 4. 미군의 전쟁예비물자 비축

유엔사의 대북억제력과 유엔사 후방기지의 전략적 투사능력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전쟁예비물자 비축수준과 관련이 있다.

미군은 글로벌 수준의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물자 및 탄약 등 전쟁예비물자를 운영한다. 이러한 전쟁예비물자 중 일부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미리 배치해 둔다. 이를 사전배치 전쟁예비물자(Pre-positioned War Reserve Material, PWARM)라고 한다.<sup>51)</sup> PWARM은 육군사전배치물자(Army Pre-Positioned Stocks, APS), 해군 및 해병사전배치(U.S. Navy and Marine Corps Pre-Positioning), 공군 PWARM(Air Force PWARM)으로 구분된다.

49) 박종근, 방준영. “주일미군과 유엔사 후방기지의 전략적 가치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4권 0호(2022), pp. 23-24.

50) 유엔사 후방지휘소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영국, 터키, 이탈리아이다.

5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fense Primer: Department of Defense Pre-Positioned Material* (December 2020), pp. 1-2.

육군사전배치물자(APS)는 전시, 위기시, 대규모 재난재해 등 인도주의적 위기사태 발생시 신속한 작전수행과 약 60일간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 및 물자이다.<sup>52)</sup> APS는 전 세계 7개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한국과 일본에는 APS-4가 배치되어 있다.<sup>53)</sup> APS-4는 한국 내 주한미군기지, 일본의 사가미종합보급창(캠프 자마에서 관리)과 요코하마 북항에 분산되어 있다. 그 중 사가미 미 육군종합보급창은 미 육군전력의 지속 지원을 위해 APS-4 자산의 수령, 보관,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미군은 군수지원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APS의 역외 전개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APS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작전이 실시되는 지역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호주에서 시행한 2023 탈리스만 셰이버 훈련<sup>54)</sup> 기간 유엔사 후방기지로부터 호주까지 미 군수물자·장비를 적재 및 이동시켜 호주로 전개한 미군과 통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사세보 해군기지에는 7함대 소속 함정 70여척이 3개월간 운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탄약 및 유류 저장시설이 있으며,<sup>55)</sup> 6백여개의 병원용 침상 등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예비물자는 한반도 유사시 개전 초기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어, 강력한 전쟁역제력으로 작용하며, 미군이 인도태평양사 작전지역내 작전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군수지원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

## 5.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결 및 다국적 안보협력을 촉진

유엔사는 캠프 험프리 내 한미 연합군사령부 본부 옆에 위치하고 있다. 한미 연합사와 유엔사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동맹·우방국이 참여하는 연합방위체제의 상징이다. 유엔사는 한미 연합연습에 유엔사 회원국의 참여를 확대해 왔다. 2007년 8월 UFL(엘리포커스랜즈) 연습에 최초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터키, 태국, 필리핀 장교가 옵서버 자격으로 연습을 참관하였고, 2010년에는 유엔사 회원국들의 연합연습 참여를 공식화하였다.<sup>56)</sup>

52) Department of the Army. *Army Pre-positioned Operations* (April 2022), pp. 1-3.

53) APS-1은 북부사를 지원하기 위해 미 본토에, APS-2는 유럽군사령부 지원을 위해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APS-3는 해상(디에고 가르시아)에 배치되어 범세계적으로 지원하고, APS-4는 인도·태평양사를 지원한다. APS-5는 쿠웨이트와 카타르에 위치, 중부사를 지원하고, APS-6는 미 본토에 위치, 남부사를 지원하며, APS-7은 이탈리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사를 지원한다.

54) 탈리스만 셰이버 훈련은 2005년 호주와 미국의 격년제 합동훈련으로 시작되었다. 2023년에는 13개국에서 3만 명 이상의 장병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확대되었다.

55) 박종근, 방준영. “주일미군과 유엔사 후방기지의 전략적 가치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4권(2022), p. 20.

56) 한미 국방장관은 2010년 “필요시 한미 연합연습에 유엔사와 전력제공국을 참여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국

2013년 3월 연합상륙훈련에는 호주군 소대병력이 처음으로 야외기동훈련에 참여하였다. 이후 유엔사 회원국들의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참가 규모는 지속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원국 상호간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사는 또한 유엔사 회원국 대사급 회의와 다양한 실무회의를 통해, 유엔사 활동 브리핑, 연합연습 및 훈련에 관한 정보 공유,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전력제공 절차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면서 유엔사 회원국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강력한 미·일 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다국적 안보협력을 견인하고 있다. 1957년 창설된 주일미군사령부는 미일동맹을 관리하고, 주일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속대응전력이자 전략적 기동군으로서 태세를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한다.<sup>57)</sup> 주일미군은 해군, 공군 및 해병대 위주로, 약 5만 4천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89개소의 주한미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7개소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에 대한 기지제공 의무는 유엔사-일본간 SOFA에 따라 유엔사 해체후 90일 이내에 종료하게 되어 있다.

주일미군은 중국과 러시아 등 역내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항행의 자유 작전 등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FOIP)을 달성하고, 한·미·일 3국과 다국적 안보협력을 촉진시키고 있다.<sup>58)</sup> 미국은 일본에 미군을 전개시킴으로써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과 도전에 맞서 억제력과 신속 대응능력을 확보하였고, 미국-일본, 유엔사와 일본간 SOFA를 통해 주둔국 일본의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 6. 한국에 있어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

바야흐로 중국이 가세한 신냉전 시대이자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거대 핵보유국과 북한이라는 소형 핵보유국이 동북아에 공존하는 동북아시아 ‘핵 2.5시대’가 도래했다.<sup>59)</sup> 전례없는 미중유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4개국 안보협의체인 QUAD의 연대를 더욱 강화했고, 새로운 군사동맹인 AUKUS를 발족시켰다. 동북아에서는 유엔사를 재활성화하여 미국의 전략적 변화를 구현토록 하였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

방협력지침에 서명하였다.

57) 임기훈(2022), pp. 253-256.

58) 한미 국방장관은 2022년 제54차 SCM에서 유엔사의 다국적 안보협력 촉진 기능을 확인하였다. SCM 공동성명 제5조, “이중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 363).

59) 김동현,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서울: 부키, 2023), pp. 16-17.

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우방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유엔결의로 창설된 현존하는 다국적 안보플랫폼이라는데 큰 가치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엔사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감시·조사하여 유엔안보리에 보고한다. 북한 도발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위기관리 기능도 수행한다.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실체이다.<sup>60)</sup>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지휘소에는 다국적 참모단이 보직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국적 안보플랫폼으로서의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은 한반도 안보, 나아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의 군대와 장비·물자가 전개하여 재편성하는 중요 병참기지이자 전방 전개 거점이 된다.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지휘소, 유엔사 후방기지는 어느 한 조직의 존립 근거가 상실될 경우 자동으로 영향을 받는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긴밀한 상관관계로 인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사, 연합사, 유엔사는 상호간 정보 공유 및 군사연습·훈련에 동참하고 있으며,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다자간 안보협력을 촉진시키고 있다.

## V. 결 론

필자는 본 연구에서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고, 특히 유엔사의 재활성화 및 국제화를 촉진시킨 요인을 미국의 국방전략,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결, 전작권 전환 추진, 미국내 조야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의 요인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과 미·중 경쟁과 갈등으로 초래된 안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미국은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가 전·평시 대북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고 21세기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되는 국제적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은 유엔사 재활성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면서, 필요시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 군의 전력 창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

60) 윤석열 정부는 한국, 미국,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로서, 북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긴밀한 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울: 국가안보실, 2023), p. 33.

다. 현재 유엔사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강력한 결속체로서 더욱 진화 중이다.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의 전략적 가치는 앞으로도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다중분쟁의 국면에서 역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현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된다.<sup>61)</sup>

북한의 상시 도발과 주변국의 군사적 팽창이 상수가 된 현재의 안보상황을 고려컨대, 한미동맹의 방위력과 우리의 우방국들이 제공하는 역량을 총합하여 한반도와 역내 안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북, 대동북아, 대주변국, 대국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유엔사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61) “세계안보질서 불안정...미 인태전략 큰 도전 직면.” 『국방일보』(2024. 1. 15).

## 참고문헌

-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울: 국가안보실, 2023).
- 국방부. 『국방백서, 2004, 2010, 2022』(서울: 국방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70년사』(서울: 국방부, 2023).
- 김동현.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서울: 부키, 2023).
- 김병기. “유엔군사령부 지위와 역할 변화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9).
- 김일영, 조성렬.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서울: 한울, 2003).
- 노동영. “한국문제에서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국방연구』 제60권 4호(2017), pp. 53-75.
- 문진욱. “유엔사의 역사적 재고찰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군사연구』 제135호(2013), pp. 247-273.
- 박원근. “유엔사의 역할 평가.”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2007), pp. 1-4.
- 박종근, 방준영. “주일미군과 유엔사 후방기지의 전략적 가치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4권 0호(2022), pp. 5-32.
- 박휘락, 김병기.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가 유엔군사령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안.” 『신아세아』 제19권 3호(2012), pp. 76-98.
- 설인효. “유엔사의 어제와 오늘.” 『군사』 제108호(2018), pp. 1-36.
- 신상범, Andrew Harrison., 『한반도 군사정전협정』(서울: 전쟁기념사업회, 2023).
- 안준형. “유엔군사령부의 미래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안보연구시리즈』 제6권 1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2020), pp. 1-48.
- 유상범. “Future Roles of United Nations command.” 『평화연구』 제25권 2호(2017), pp. 161-183.
- 윤지원, 심세현.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안보전략.”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권 1호(2016), pp. 349-380.
- 이상철. “한반도 정전체제와 UNC 위상.” 『군비통제』 제34집(2003), pp. 275-318.
- 이상철. 『한반도 정전체제』(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 임기훈. “탈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제4호(2021), pp. 73-106.
- 임기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서울: 플래닛미디어, 2022).
- 장광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9).

- 장광현.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전략자산 유엔군사령부 인사이트』(서울: 선진, 2022).
- 장광현, 최승우, 홍성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의 전력창출에 관한 연구.” 『사회융합연구』 제1권 3호(2017), pp. 1-18.
- 정재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 제141권(2014), pp. 1-8.
- 한국국가전략연구소. 『2022 동아시아전략평가』(서울: 한국국가전략연구소, 2022).
- “세계안보질서 불안정...미 인태전략 큰 도전 직면.” 『국방일보』(2024. 1. 15).
-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주요내용과 성과.” 『국방일보』(2023. 11. 16).
- “국방부-유엔사, ‘유엔사 역할확대’ 이견조율 고위급 협의체 가동,” <https://www.mk.co.kr/news/politics/8982531>(검색일: 2024.1.7.).
- “유엔사 재활성화 종료.” <https://www.unc.mil/History/Post-1953-Evolution-of-UNC/>(검색일: 2023.12.13.).
- 통일뉴스, “유엔사 ‘재활성화’의 배경과 목표,”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419>(검색일: 2024.1.7.).
- “트럼프, 주한미군철수 수차례 언급...韓 다루기 끔찍하다 말해,”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003100071>(검색일: 2024.1.7.).
- “독 참여와 덴마크 활동 확대 반대,”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7/12/ZPF2EAZPAVDL5MK66DJRRXOXJU/>(검색일: 2023.12.14.).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fense Primer: Department of Defense Pre-Positioned Material* (December 2020).
- Department of the Army. *Army Pre-positioned Operations* (April 2022).
-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Defense Strategy 2008*.
-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23* (2023年版 防衛白書 英語版) (Tokyo: Nikkei Printing, 2023).
- The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2022).

## Reconsider the Revitalization Factors and the Strategic Value of UNC

Lim, Ki Hoon

### Keywords

United Nations Command(UNC), UNC-Rear, Revitalization of UNC, ROK-US Alliance, US-Japan Alliance, Strategic Value of UNC

This study deals with the history, revitalization factors, and strategic value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s, such as the United States' defense strategy. President Yoon Suk Yeol described the UNC as a platform for maintai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viding military support of allies in case of emergency, at a ceremony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on July 27, 2023. This suggests that the UNC can serve as a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through which allies and partners can unite. The UNC was established by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short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Since then, it has undergone a gradual reduction, stagnation, and revitalization over the past 70 years, and is now evolving into a stage of internationalization. This is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factors such as the US defense strategic pivot to Asia,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promotion of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through the connect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movement to adjust the size of the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Today, the UNC and its rear bases have strategic values to manage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a stable manner, ensure the generation of multinational military forces, enhance the strategic projection capabilities of the US, and its allies and partners, connect the ROK-US alliance and the US-Japan alliance, and promote multi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Considering the current security situation caused by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US-China competition and conflict, the strategic value of the UNC and its rear bases is increasing, and it is necessary to make

the most of these capabilities to respond to security uncertain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논문투고일: 2024. 4. 29.]

[심사의뢰일: 2024. 5. 17.]

[게재확정일: 2024. 6. 12.]

